

‘몸값만 수십억대’ 유즈님 마음 잡은 비결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파트너십 매력적 안테나의 ‘독특한 색깔’ 일맥상통 유희열·정재형 등 친한 동료 많아



유재석이 지난 6년 동안 함께해온 FNC엔터테인먼트와 헤어지고 가수 유희열이 이끄는 기획사 안테나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안정적 자본, 새로운 협업, 변화의 갈망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스포츠동아DB

‘국민MC’ 유재석의 파격 행보다. 최근 6년간 몸담았던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만료한 유재석이 수많은 대형 기획사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안테나에 몸담기로 최종 확정했다. 가수 유희열이 이끄는 가수전문 기획사에 ‘1호 개그맨’으로 영입됐다. 뜻밖의 선택에 연일 방송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재석과 안테나 양측에게 ‘도전’이라는 시선이 압도적이다. 안테나는 유희열을 비롯해 정재형, 루시드폴 등 개성 강한 가수들이 포진해 있지만, 전문방송인으로서 유재석이 첫 주자이다. 유재석도 그동안 동료 방송인들이 소속된 회사에 몸을 담았던 터여서 양측이 손을 잡은 이유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있다.

●예상 ‘몸값’만 수십억대…왜 안테나? 일각에서는 최근 안테나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이 되면서 유재

석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안테나는 5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유재석의 안테나행에도 대형 콘텐츠 회사의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인 자본을 갖춘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방송가에서는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유재석의 ‘몸값’을 감당할 기획사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

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드라마, 영화, 카카오TV 오리지널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안테나를 통해 협업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자체 콘텐츠를 내놓기 시작해 1년여 만에 ‘전경규’ ‘특이나 할까’ ‘개미는 오늘도 똥퐁’ 등을 화제에 올렸다. 이경

규, 강호동 등 베테랑들이 저마다 카카오TV를 통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도전한 바 있다.

●“색다른 색깔” 향한 갈증도 반영 유재석의 변화를 향한 갈망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도 풀이된다.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유재석은 언론 인터뷰와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신선함과 새로움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크다”고 밝혀왔다. MBC ‘놀면 뭐하니?’,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현재 진행하는 예능프로그램도 신선한 포맷에 이끌려 선택했다. 안테나는 1997년 토이뮤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독특한 색깔을 유지해왔다. 전 시형 콘서트 ‘사운드 프레임’을 여는 등 새로운 시도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같은 분위기가 유재석이 원하는 ‘색다른 색깔’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유희열과 정재형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춘 이들의 존재감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석은 14일 “오랫동안 알아 온 친한 동료들과 함께하게 돼 설레고 기쁘다”면서 “이들과 펼쳐나갈 재미있는 일들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BTS, 글로벌 라이브 공연…감염병 극복 응원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라이브 공연 무대에 선다. 14일(한국시간) 국제 빈곤퇴치 운동 단체인 글로벌 시티즌은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공연을 9월25일 펼친다면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빌리 아일리시, 콜드플레이, 에드 시런 등 세계적 가수들이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서울과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등 6개 대륙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미국 ABC와 영국 BBC 등이 24시간 생중계한다.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놓인 빈곤층에게 백신을 기부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무대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57만3000여장으로 올해 상반기 미국 최대 CD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채널A, 웹 예능 ‘레디가이:일단 해! 결혼’ 공개



레디가이:일단 해! 결혼

채널A가 새 오리지널 웹 예능 콘텐츠 ‘레디가이:일단 해! 결혼’을 공개한다. 14일 채널A는 “콘텐츠는 여자친구가 없는 싱글남이 일단 결혼 준비부터 먼저 시작하는 과정을 담는다”면서 “‘선 결혼 준비 후 연애’를 콘셉트로 내세운 독특한 포맷”이라고 밝혔다. 채널A 사회부 소속 김태욱 기자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제작진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김 기자를 위한 ‘깜짝 카메라’ 등도 준비했다”며 기대감을 당부했다. 15일부터 채널A 유튜브 공식 채널 ‘에이오’를 통해 공개된다.

영화 ‘헌트’ 현장 스태프 코로나19 확진 판정

연예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주지훈, 김남길, 조우진 등이 11일 부산 모처에서 촬영을 진행한 영화 ‘헌트’ 현장에서 한 스태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독이자 주연인 이정재를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이 관련 검사를 받아 14일 오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MBC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MBC는 “이날 오전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 관계자와 직원들이 검사를 받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가 프로그램 제작진이 아니어서 방송에는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

영화 ‘악녀’ ‘7번방의 선물’ 해외서 리메이크

한국영화가 잇달아 해외에서 리메이크된다. 영화 투자 배급사 NEW는 14일 김옥빈·신하균 주연 영화 ‘악녀’의 리메이크 판권을 미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아마존프라임비디오는 ‘악녀’를 ‘빌러니스(Villainess)’라는 제목의 시리즈물로 리메이크한다. 유명 시리즈물 ‘윙크 데드’의 스카이라운드가 제작하고, ‘스타트렉 비욘드’의 더그 정 작가가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류승룡이 주연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2012년작 ‘7번방의 선물’도 스페인에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스페인 제작사 락엔레즈가 리메이크 판권을 구매했다.

CGV, ‘장화, 홍련’ 등 한국 공포영화 명작전

한국의 대표적인 공포영화가 한 무대에서 다시 관객을 만난다. CJ CGV는 시그니처K를 통해 ‘한국 공포영화 명작전(展)’을 열어 ‘기담’과 ‘장화, 홍련’, ‘폰’ 등 영화의 리마스터링 버전을 상영한다. 시그니처K는 CGV가 3월부터 한국영화 명작을 매월 선정해 다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14일 ‘기담’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장화, 홍련’과 ‘폰’의 리마스터링 버전을 선보인다. 조진호 CGV 콘텐츠기획 담당은 “2000년대 공포영화의 대표작”이라면서 “무섭지만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을 한국적 정서로 잘 표현한 웰메이드 공포영화의 진수”라고 평가했다.



‘애프터 양’ 코코나다 감독

칸이 주목하는 한국계 감독

코코나다 감독 ‘애프터 양’ 등 주목할만한 시선 경쟁작 초점

제74회 칸 국제영화제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계 감독과 배우의 영화가 주요 색선에 초청돼 눈길을 끈다. 한국영화는 경쟁부문에 단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지만 대신 총무로 관계자들이 현지 활발한 활동으로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7일(이하 한국시간) 막을 연 칸 국제영화제는 한국계 감독과 배우가 참여한 두 편의 영화를 공식 부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재미교포 2세 저스틴 전 감독이 미국 한인 입양아의 아픔을 그린 ‘블루 바유’와 역시 한국계인 코코나다 감독이 연출한 ‘애프터 양’이다. ‘블루 바유’는 윤여정에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미나리’의 감성을 잇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애프터 양’은 로봇 인간을 지키기 위한 한 가족의 분투를 그린 SF영화로, 한국계 배우 저스틴 민이 콜린 퍼렐 등 스타들과 주연했다.

두 작품은 이번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초청작이다. 주목할 만한 시선은 경쟁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식 색선이며,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젊은 감독의 작품을 중심으로 초청 상영한다. 그런 점에서 두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도 작지 않다.

이번 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작품을 선보이지 못하게 된 한국영화는 칸 필름마켓을 무대로 활발히 뛰고 있다. 국내 OTT 찾자는 이번 영화제 개막작 ‘아네트’와 ‘타이탄’ ‘애프터 양’의 판권을 구매했다. 또 왓챠의 박태훈 대표는 칸 필름마켓에서 ‘한국을 사로잡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제로 연설해 눈길을 모은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이자 이번 영화제 프리미어 부문 상영작인 ‘당신 얼굴 앞에서’도 미국 등에 판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앞서 비경쟁부문 초청작인 ‘비상선언’의 송강호와 이병헌은 각각 이번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과 18일 폐막식 시상자로 위촉됐다.



웃음보 터진 ‘타이탄’ 배우들 14일 오전(한국시간)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상영작 ‘타이탄’의 주연 이가서 루셀과 연출자 줄리아 듀코나우 감독, 주연배우 뱁상 뎡동(왼쪽부터)이 영화의 공식 상영을 앞두고 레드카펫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칸(프랑스) | AP·뉴스시

‘랑종’ 예매율 50% 육박…위기의 극장가 구원투수 될까

감염병 4차 유행 속 기대작들 선전 ‘모가디슈’ ‘싱크홀’ 등 잇따라 개봉



영화 ‘랑종’

‘그래도 희망은 있다.’ 감염병 4차 유행 속에서도 극장가가 힘겹게 활력의 불씨를 땀기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속에서도 1~3차 유행 때보다 관객이 늘어나는 등 작은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블랙 위도우’와 ‘랑종’ 등 기대작의 선전 등으로 당분간 분위기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3일 현재까지 7월 극장 관객수는 303만 6000여명. 이 가운데 5일부터 11일까지 192만3000여명, 주말이었던 9일부터 11일까지는 123만8000여명이었다. 특히 토요일인 10일 52만여명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흥행하던 지난해 8월16일 이후 하루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이는 5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0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병의

4차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얻은 성과여서 주목된다. 또 지난해 1월19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된 3월(1차 유행·183만명), 8월15일 보수단체의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확산세가 거세진 2차 유행, 지난해 12월 초부터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난 3차 유행 시기의 관객수(143만명)를 뛰어넘는다. 지난해 8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흥행과 7월 개봉한 ‘반도’의 성과 등으로 한 달 동안 883만명을 모으며 주말 평균 100만명을 기록했지만,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확산세가 본격화한 18일

이후 주말 48만명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을 훌쩍 넘기면서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비수도권도 상향 조정하는 등 극장가 어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인 극장의 영업 제한(밤 10시) 조치 지역이어서 관객 감소 우려가 크다. 하지만 7일 개봉한 ‘블랙 위도우’가 6일 만에 150만명을 넘어섰고, 14일 선보인 화제작 ‘랑종’의 실시간 예매율이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50%에 육박하는 등 흥행 기대감이 나온다. 또 28일 ‘모가디슈’를 시작으로 8월11일 ‘싱크홀’, 18일 ‘인질’ 등 기대작도 개봉을 예고했다. 한 극장 관계자는 “그동안 철저한 방역을 통해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곳이 극장이다”면서 “좌석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을 더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객을 꾸준히 불러 모으는 것도 이런 노력에 더해 ‘불 만한 영화가 있다면 관객은 극장에 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